

불교계 수해복구 지원 잇달아

수해지역에 불교계의 자비 손길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조계, 천태, 진각종 사회복지재단이 태풍피해지역에서 대대적인 자원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각 사찰과 불교계 단체들의 성금 및 복구지원도 늘어 수마의 상처로 고통받고 있는 수재민들을 위로하고 있다. 피해사찰들도 적극적인 봉사모임을 통한 복구작업에 나서고 있다.

태풍 '루사'로 인해 큰 피해를 본 남원 실상사 선방 백장암은 동안거 이전까지 복구를 한다는 계획에 따라 불자모금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백장암은 법당에 토사가 밀려들고 선원 벽이 무너지는 등의 피해가 컸다.

선원장 연관스님은 "이번 동안거 결제를 시작으로 3년 결사를 준비중"이라며 "동안거 전에 복구될 수 있도록 불자들의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011-670-9064

법종단적인 성금담지와 자원봉사활동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조계종 분사주지연합회(회장 법장)는 11일 속초시청에 300만원의 수재의연금과 쌀 50가마, 라면 50상

자, 강릉시청에 쌀 40가마, 강릉 자비원에 200만원, 강릉의 한 불자에게 100만원을 전달했다. 충북 음성군의 미타사도 산사음악회를 취소하고 음악회 비용 1천만 원으로 쌀과 된장, 고추장, 간장 등 이재민 지원 생필품을 구입, 1일 충북도청에 기탁했다.

이밖에 월정사와 2군사령부가 14일과 11일, 원주 법운사와 무열대 중문 앞 공터에서 수재민들이 바자회를 열어 성금을 마련했다.

교구본사주지연 의연금·생필품 전달

미타사, 산사음악회 비용으로 이재민 지원

"동안거전 복구됐으면" 백장암 스님 쌀 '동동'

13일 동국대 교수와 석림회 스님 50여명이 김천 청암사에서 사찰복구 지원활동을 벌였으며, 동화사 봉황 자원봉사단을 비롯한 산하 9개 단체 40여명은 8일 7백7십여만원 상당의 구호품 지원과 함께 김천시 부항면 일대에서 수해복구 자원봉사에 나섰다. 맑고향기롭게 대구모임도 김천시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영남불교대학 15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은 10일 충북 영동 용산면

지역에서 빨래, 가구 씻기, 고추밭 정리 등의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부산 보현의 집 43명의 봉사자들도 8일 산청군 생초면을 찾아 태풍으로 인한 과수원, 버섯농장 등의 피해 복구 작업에 구슬땀을 흘렸다. 예산 수덕사 신도 120여명과 선재동자원도 각각 강릉 수해현장에서 수해복구 작업에 동참했다.

한편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방천리에 소재한 건봉사는 13일 현재 진입로가 모두 끊겨 10일째 고립돼 있다. 현재 뇌중부대가 병력과 장비를 투입해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산세가 험해 한동안 고립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건봉사는 부도전 경내가 유일되고, 대응전에 토사가 유입됐으며, 종각 원적암 화장실 축대가 붕괴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계종 총무원이 1일부터 도급한 수재민 돕기 성금접수에는 12일 현재 126개 사찰 및 개인 단체가 참여하여 1억6백만 원을 모금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계종은 접수기간을 2주 연장해 9월 말까지 접수한다. 02-735-5864 김원우 기자 www.km@buddhista.com

김태복사건 탄원서 불교계, 공정판결 촉구

조계종은 김태복 육군 소장 재판의 공정정당한 판결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3일 대법원에 제출했다.

조계종은 탄원서를 통해 "군사재판이 편파적이고 편향적인 진행과 군의 입장에 부합하는 증인들의 증언만을 채택하는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재판이 진행됐다"며 "공정정당한 판결을 촉구했다."

탄원서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종회의장 지하·포교원장 도영·교육원장 무비 스님 등 80여명 중진스님들의 연서가 첨부됐다. 박봉영 기자

동국대 불교병원 27일 준공식

법당·장례식장도...최첨단 시설·무균병동 자랑

동국대총장 송석구는 27일 오후 2시 동국대 의대·한의대 부속 불교병원 준공식을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식사동 병원현장에서 봉행한다. 이날 행사에는 김홍국, 설운도, 송대관, 장미화, 이은하 등 불자 연예인들이 출연해 축하공연을 펼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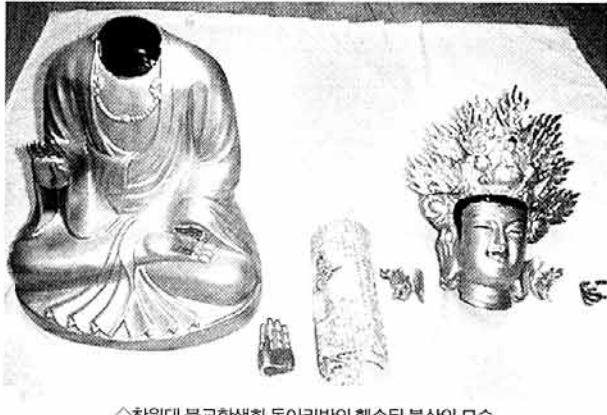
이날 준공식을 갖는 동국대 불교병원은 3만여평 부지에 건평 2만7천평의 지하2층 지상 12층 규모로 외래진료동, 입원병동, 중앙지원동, 장례동 등 4개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불교의 사법인을 의미하는 뜻

에서 설계됐다. 특히 외래진료동은 4층으로 불교의 실천적 원리인 '사상제'를 뜻하며, 입원병동은 12층으로 12연기, 주 출입구 열주기둥은 8개로서 8정도를 의미한다.

최창선 건설본부장은 "국내 최고 병원들의 단점을 보완한 최첨단 시설을 자랑하고 있다"며 "특히 모든 검사는 전자동화시스템으로 이루어져 검사시간이 단축될 것이며, 환자 중심의 동선배치로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또 최본부장은 "수술대 천장에 설치된 무

영등에 특수 카메라를 장착해 주요 수술장면은 의과대학생들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를 통해 보고 공부할 수 있도록 했다"며 "급성백혈병과 장기이식환자 등 특수질환자들을 위한 무균병동도 최초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외래병동 5층에는 3백여명용 수용할 수 있는 대강당을 비롯해, 세미나실 등도 갖춰져 있다. 또 불교병원의 취지에 맞게 장례식장과 외래병동에 15평 규모의 법당도 마련해 놓았다. 김주일 기자



창원대 불교학생회 동아리방의 훼손된 불상의 모습.

창원대서 훼손사건 불교동아리 불상 파손

창원대 불교학생회(회장 정지은) 사회학과2에서 불상 훼손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9월 4일 오후 11시 동아리방을 찾은 대불련 산해원지부장 최정

민(창원대 행정학과3 씨) 동아리방에 봉안된 불상의 목과 왼쪽 손목이 절단된 것을 처음 발견했다.

이에 따라 창원대 불교학생회는 5일 불교학생회실에서 '훼손 사건 임시대책위원회' 구성, 오는 18일 창원대 총학생회, 대불련 부산·경남지부가 참여하는 '훼손사건 참회 가두대행진'을 화내에서 벌이기로 했다. 김철우 기자

포교원, "위덕대 군승파견 불가 불교의식·수계절차 등 조계종과 큰 차"

조계종 포교원이 위덕대를 군승파견학교로, 진각종을 군승지정종단으로 선정하기 어렵다는 공문을 12일 진각종에 발송했다. 포교원은 공문에서 "지난 30년간 군포교 일선에서 통일적으로 진행된 전통불교의식과 군승파견 수계절차에 대한 양 종단 간 교육과정의 차이가 커 군승파견이 불가함을 인지해 달라"고 회신했다. 이에 앞서 11일 제154회 임시중앙

종회에서 종회의원 지광스님의 '진각종 군승파견요구에 대한 종단적 입장'에 대한 질의에 대해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은 "논산훈련소 입소대법당지원에 4억원 내놓았으니 들어온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사람이 부족하다고 머리 기른 사람들과 합하면 조계종의 정체성을 찾기가 힘들다. 진각종과는 협의할 상대가 아니다"고 강력히 반대했다. 김철우 기자

'50대는 불교를, 40대는 천주교, 10대는 개신교를 선호한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은기수 박사는 11일 통계청이 주최한 한국교회의 인구와 주택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불교는 주로 부산과 대구, 경남, 경북지방 등에 분포

50대=불교, 40대=천주교, 10대=개신교 은기수박사, 연령별 종교선호도 조사

패 있으며 50대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은 박사의 연령별 '선호 종교' 분석결과 불교는 50대(34.9%)에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으나 개신교는 19세 미만(23.0%), 천주교는 40대(7.6%)가 가장 많았다. 7-19세의 연령층에서는 개신교(23.0%)가 불교(17.6%)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남성의 경우 85년 종교별 인구 비율이 불교 20.1%, 개신교 14.5%, 천주교 4.2%였으나 95년에는 불교 23.3%, 개신교 17.7%, 천주교 6.0%로 높아졌다. 반면, 무종교인의 비율은 같은 기간 59.0%에서 51.7%로 낮아졌고 여자 역시 50.8%에서 43.2%로 줄었다. 김재경 기자



국립문화재연구소는 부식이 진행되고 있던 금동자물쇠 3점을 9개월 동안 보존처리한 끝에 11일 공개했다. 보존처리 결과 금동비너처럼 보이던 연꽃 봉우리 모양의 문양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자물쇠 3점은 지난 89년 한천사 경내에서 청동반자와 함께 발견된 것으로, 성분 검사 결과 구리와 주석, 납 등으로 만들었음이 새로 확인됐다. 고려시대에 만들어져 그 예가 드물 뿐 아니라 문양이 아름다워 미술사적으로도 중요한 자료다. 권형진 기자

한국불교국제화 전략

참여불교재가연대 '협력위' 발족 최근 한국불교의 국제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참여불교재가연대가 국제협력위원회를 발족, 한국 참여불교운동을 세계에 알리는데 적극 나서고 있다. 재가연대(상임대표 박광서)는 한



"죽음 준비해요" 13일 경기도 고양시에 개원한 국내최대규모 납골추모사찰 해인사 미타원 개원식에 참가한 스님들이 관에 직접 들어가는 죽음체험 행사를 가졌다. 이날 개원행사는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포교원장 도영·종회의장 지하·동국대 교수 안한·해인사 주지 세민 스님, 한화갑 민주당 대표 등 3천여명이 참석했다. 고양=고영배기자

당신의 전생을 보여드립니다

최영식(00 미래 연구소)
그 사실을 봤다면 입력이 돼 있거든요
입력이 돼 있다면 눈이 렌즈이기 때문이

의민수의 놀라운 진실 오기점천국에서 방송

당신의 슬픔과 고통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당신의 전생에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 물음에 대한 진정한 답을 '최면-전생'을 통하여 찾아보십시오.

점(占)과 철학으로 사람의 운명을 상담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최면-전생 요법으로 당신의 전생과 미래의 삶의 모습을 마음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이생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영혼의 완성을 위한 배움터 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각각의 전생의 카르마(業)에 의해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그 예정되어져 있는 영혼의 프로그램을 최면-전생을 통하여 확인하십시오.

최면전생 특강 내용

- (1) 최면으로 하는 제령 천도(天道) - 자신의 몸속에 있는 영가(靈歌)나 영의령(靈依靈)이 영계로 떠나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하는 기법
- (2) 전생회향 최면 - 무의식속에 기억되어져 있는 전생의 사건과 경험들을 재생시켜서 보게하는 기법
- (3) 원격 제령 최면 제 3자가 최면에 들어 원하는 사람의 몸속에 있는 영가를 천도 하는 기법. 최면 당사자가 그 사실을 확인하고 불수 있음.
- (4) 최면 파동요법
사람이나 영가는 저마다 고유한 주파수(영파(靈波))를 가지고 있는데 영혼파동기법으로 그사이클에 초점을 맞추어 영가(靈歌)를 불러내어 제령 천도하는 기법. 영가가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떠나 가는 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기법.

강의 안내

○ 개강 : 수시접수 ○ 시간 : 매주 토요일 3시간, 3개월 과정 ○ 특강 : 지역별 그룹특강 가능 (일주일 과정)

※ 저서 '우리는 태어나기 이전부터 존재했다.'
법운 선생님 약력

2001년 SBS '오기심 천국'
- '최면술의 놀라운 진실' 출연
2002년 KBS 'VJ특공대'
- '최면의 세계' 출연
동래고등학교 졸업
한양대학교 졸업
세계 아마포 기공협회 회장
동방 최면전생 연구소 소장
연 '심경그룹' 교문으로 재직